

고등학생의 남자 가정과교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전미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ubjectivit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Jun, Mi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nd identify diverse viewpoints. To this end, the Q method was used, which is useful for operant subjectivity studies in which research participants create their own opinions and viewpoints. Based on the general procedures of the Q method, this study finalized 40 statements comprised of the representational system of high school students on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hich are Q samples, from the Q population. The statements were Q-sorted by P samples comprised of 31 high school seniors and analyzed using the QUANL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4 different viewpoints of high school students on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The type 1 focused on individual traits, claiming that the 'male' gender of home economics teachers and the 'home economics' subject are merely individual traits of the teachers. The type 2 focused on the subject, perceiving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th focus o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The type 3 focused on competencies, thinking that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have sufficient skills and competencies to teach home economics. Finally, the type 4 focused on character, valuing the character of the teachers and thinking that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the challenge of teaching home economic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provides the basic data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students' perception o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in individual context.

Key words: 남자 가정과교사(male home economics teachers),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 주관성(subjectivity), Q방법(Q method)

[†] 교신저자: Jun, Mi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0, Pildong-ro 1-gil, Jung-gu, Seoul, 04620, Republic of Korea
Tel: +82-2-2260-3889, E-mail: mikjun@dongguk.edu

이 논문은 2021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서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교과교육은 우리나라 보통교육이 확립하는 식민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남학생이 가정교과교육의 대상이 된 것은 1992년 제6차 교육과정부터이다.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남녀 평등의식이 확산하였고,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인 1981년에 남녀 고용평등법이 이미 제정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때(Chae, Park, Kim, & Han, 2017; Jun, 2004, 2005), 가정교과의 남녀공통필수 지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결코 빠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가정교과가 1990년대 초반에야 남학생도 이수 가능한 교과목이 된 것은 전통적 성역할관에 근거한다. 구조기능론의 대표학자인 T. Parsons는 산업화와 핵가족의 적합성을 주장하며, 핵가족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이동에 가장 기능적이라 하였다. 또 경쟁적이고 비인격적인 사회에서 핵가족의 가족기능에 있어, 생계부양 같은 경제적 기능은 남편에 의한 수단적 역할(*instrumental role*), 자녀양육과 가정의 정서적 기능은 아내에 의한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Yoo et al., 2004). T. Parsons를 위시한 구조기능론자들의 전통적 성역할관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가정 밖 일터는 남성의 공간으로, 가정은 여성의 공간으로 여기는 성별 이분화를 강화시켰다. 성별 이분화는 성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다. 성 고정관념이 왜 끈질긴가를 논한 Cho (2001)에 따르면, 성별 범주는 가장 먼저 학습된 범주이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수준에서 성 고정관념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도 못하면서 자동적·암묵적으로 활성화되어 간다. 따라서 각 개인은 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체성을 구성하며 자기이행적으로 고정관념을 확인시켜 주는 삶을 살고 있다. 성 고정관념의 해체는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식수준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의식되지도 않기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고정관념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직업의 성 유형(*sex-type*)은 직업의 성 고정관념을 말한다. 즉 특정 직업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일컫는다. 예컨대 간호사나 항공승무원처럼 여성이 수적으로 많은 여성 중심(*female-dominated*) 전공 또는 직업을

여성의 전형적인 영역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직업의 성 고정관념 때문이다(Han & Chang, 2005). 마찬가지로 사건·사고가 많고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전형적 남성 중심 직업인 경찰·군인·소방관에서의 여성 진출이 주목 받는 것 역시 직업의 성 고정관념에 기인한다.

직업에서의 ‘남성 중심성’과 ‘여성 중심성’ 같은 직업 성 고정관념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연구주제였다.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서 고위직으로 진출해 유리천장을 깨는 ‘비전형적인’ 여성들의 이야기(Chun, 2009; Sohn, 2005)나, 남성중심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의 진로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Gee & Yang, 2017; Kim & Lim, 2011)가 대표적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이 이전 시대보다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직업선택 시 그 직업이 어느 성에 어울리는지와 같은 직업의 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다(Kim & Kim, 2003). 이런 가운데 보육과 유아교육 영역에 진입한 남학생과 남교사는 성 고정관념을 탈피한 선택으로, 관련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다. 남자 유아교사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Park과 Kang(2020)에 따르면, 남자 유아교사 관련 연구는 2001년에 시작되어 2011년~2015년 사이 급증하였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도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인식, 남자 유아교사의 경험, 남자 유아교사와 유아의 성역할 발달, 남자 유아교사 지원방안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연구는 보육과 돌봄이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의 해소 및 이 분야에 진출한 남자들의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정교과의 남자교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최근 Ahn과 Park(2020)의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 가정교과교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등학교의 남자 가정교과교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Ahn & Park, 2020), 가정교과교사를 양성하는 가정교육과에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2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가정교육학과 남학생이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을 거쳐 가정교과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신문에 실릴 정도로 주목 받는 일이었다(Hwang, 2015, February 10; Kim, 2018, March 6).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는 2016년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정과 남교사와의 멘토링’ 세션을 구성하여, “희귀 생물” 취급을 받는 가정교

육과 남학생의 적응을 지원하였다(Cho, 2016, November 8).

이 연구는 남자 가정과교사 및 남자 예비가정과교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Ahn과 Park(2020)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과교육의 연구대상을 ‘남자 가정과교사’로 확대하고자 한다. 남자 유치원교사 연구는 이들이 겪는 현실적, 실존적 어려움을 드러내며 지원전략을 구체적으로 축구하고 있으며(Kim, 2013), 남자 예비유치원교사 연구는 유아교사로서의 역할기대를 살펴 진로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Han, 2018; Joo & Kim, 2011). 남자 가정과교사 연구 역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교과서와 수업자료,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현장을 남자 가정과교사와 남자 예비가정과교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해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Q방법론은 William Stephenson이 창안한 것으로, 개인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태도와 자각 등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다. 즉 Q방법론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주관성 즉 주관적 인식이다. 주관적 인식은 인간의 느낌, 관점이나 의견, 신념, 선호,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 속성을 의미한다(Kim, 1992). Q방법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연구자가 아닌 참여자 스스로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따른다는 것이다(Kil, Lee, Lee, & Chung, 2020; Kim, 1992; Kim, 2008a). 자결적 주관성은 연구 대상 스스로가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Kim & Lee, 2020). Q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일련의 의견(진술문)에 자신을 투사해 참여자의 감정, 의견, 가치, 태도, 관념, 인식 등의 주관적 태도를 설명해준다. 또 Q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참여자 인식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태도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Kim & Cha, 2008).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려는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학생 중에서도 고등학생으로 제한해 진행하고자 한다. Q방법론을 창안한 Stephenson은 Q방법론의 연구 참여자인 P표본의 구성에, 그 주제에 관해 특별한 흥미를 갖는 사람,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주제에 권위가 있거나 전문가, 일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주제에 관해 정보가 있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 등을 추천하였다(Kim, 1992). 또

1명이 아닌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의 경우 P표본 선정은 보편적 사고 위에서 연구 목적과 관련한 연구 대상자들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Kim, 2016). 이 연구의 경우, P표본을 중·고등학생으로 넓게 두어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학생 전반의 인식을 살펴볼 수도 있으나, 이 연구가 남자 가정과교사에 주목하는 초기 연구임을 감안하여 「가정」이라는 교과경험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수업 경험이 많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해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며,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인식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생의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인식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직업의 성 고정관념과 남자 가정과교사

고정관념이란 사람들에게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폭 넓은 범주로, 모든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이 어떤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고정관념은 세상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이지만 한번 형성된 고정관념은 이에 반대되는 증거를 만나도 버리기는 쉽지 않다(Santrock, 2004). 여러 고정관념 중 특히 성 고정관념은 가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으로(Cho, 2001), 한 사회의 성원들이 여자 혹은 남자의 특성이나 역할에 대해 부여하는 일군의 신념을 말한다. 모든 고정관념이 지나친 일반화를 양산시키는 것처럼, 성 고정관념 역시 여성과 남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킴으로써 무비판적인 판단을 내려 편견적 태도를 갖게 한다.

성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것이 직업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다. 직업 성 고정관념은 특정 직업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한쪽 성이 그 반대의 성보다 더 적절하게 직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말한다. 유교주의 문화전통이 우세한 한국은 다른 어떤 문화권보다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강하다(Kim & Kim, 2003). 여성 혹은 남성이 수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여성 중심(female-dominated) 또는 남성 중심(male-dominated)의 전공 또는 직업은 개인에게 특성화된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성별 노동분화는 성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킨다. 즉 직업이 요구하는 역할이 실제의 성차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분업이나 역할 자체가 성 고정관념을 양산한다. 역할에 기반을 둔 성 고정관념은 능력보다는 성을 근거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맡기므로, 개인의 활동영역을 한정시키며, 그럼으로써 고정관념은 확인되고, 반복되며, 유지될 수 있다(Cho, 2001).

돌봄 노동은 대표적인 여성 중심 직업이며 여성의 노동으로 간주된다.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유아를 돌보는 유아교사에 여성이 수적으로 많은 것은 돌봄이 전형적인 여성의 영역이라는 성 고정관념에 기인한다. 우리사회의 이러한 직업 성 고정관념을 주시하여 유아교육과 간호학 분야는 남자 유아·보육교사 및 남자 간호사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진척시켰다. 여기서는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남자 유아·보육교사와 관련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자 유아교사에 관한 비교적 초기 연구로 Choi(2003)는 유아교육 분야에 들어선 남자유아교사의 경험을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자 유아교사들은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분야로 유아교육을 선택하였고, 여학생 중심인 유아교육관련 학과에서 교수님의 관심은 궁정적인 경험이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초임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자신들을 향한 의구심과 여자 유아교사들에 적합한 교수방법모델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교사생활을 한다. 남자 예비유아교사 및 유아교사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Park & Kang, 2020). 현직 남자 유아교사와 예비 남자 유아교사의 멘토링 연구(Roh & Kim, 2019)에 따르면, 두 집단 모두 학과 적응 및 사회적 편견, 군입대시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현장 교사의 이야기는 장래희망이 불확실한 예비 교사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의 주요 연구에 의하면, 이들의 적응을 위해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Cho & Park, 2019), 남자 유아교사의 교직능력은 남자 유아교사를 경험한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교사가 학부모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한다(Choi & Lim, 2012). 여자교직원에게 남자교사는 처음에는 쉽게 가까워지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교직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기관의 교사 수가 많을 때 원활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한된 스킨십과 여자유아의 배변처리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신체활동이 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비춰진다(Kim & Lee, 2015). 이처럼 남자 유아교사에 관한 연구는 여교사 중심인 유아교사 현장에 남자 유아교사의 확대 및 이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되어 유아교육 및 유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남자 유아교사에 대한 유아교육 분야의 상당히 진척된 연구와 달리 가정교육 분야에서 남자 가정교사 및 남자 예비 가정교사에 대한 연구는 Ahn과 Park(2020)에 의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남자 가정교사의 정체성’을 내러티브 탐구라는 질적연구로 추적하는 이 연구는 12명의 남자 가정교사의 내러티브를 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남자 가정교사의 내러티브를 3단계 즉 ‘우연: 편견의 벽을 깨고’, ‘직면: 남자 가정교사로 살아내기’, ‘기대: 가정교사로 성장하기’로 구조화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는, 남자 가정교사는 가정교과의 특징인 ‘실천성’과 함께, 성별과 무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힘 쏟을 때 가정교사로서의 삶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렇듯 Ahn과 Park(2020) 연구는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가정교육의 연구대상을 ‘남자 가정교사’까지 확대한 점과 이들의 경험을 내러티브하게(narratively)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2. Q방법론과 가정교육

Q방법론은 인간의 다양한 주관성을 탐구하는 방법론이다. 주관성이란 ‘타인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Q방법은 응답자 스스로가 자구들(대개 진술문)을 비교하여 그 순서를 정함으로써 이를 모형화 시키고, 결국 그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가는 것이다(Kim, 1992). 인간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은 주관성의 구체성을

찾는 데 적합하다(Kim, 2008a). 사실 인간의 느낌, 감정, 태도를 말하는 인간의 주관성에는 동일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변하는 불확정성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Q방법론은 이러한 주관성이 지니는 불확정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관찰자의 연구 틀이 아닌 본인의 참조 틀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성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Kim, 2016; Kim & Lee, 2020).

연구방법인 동시에 분석방법인 Q방법론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Kim, 2008a; Kim & Won, 2000). 먼저 연구자가 의도하는 변인을 정의한 다음 그 변인을 대표하는 진술문을 작성하고(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 준비된 진술문에 반응할 사람을 선정하고(P표본의 선정),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된 진술문을 정상분포 또는 준정상분포가 되도록 강제분류하게 하여(Q분류), 그 결과를 가지고 분류한 사람들 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이 상관계수 행렬을 요인분석하여 요인을 추출,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주관성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Q방법론은 자아참조적 주관성과 연관된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에 적용이 가능하며(Kil et al., 2020), 교육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적용되어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Shin & Kim, 2017),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 인식(Lee & Park, 2017), 초등교사 대상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과정,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Choo & Sin, 2015; Han, 2020; Kwon, 2010; You & Jeong, 2020), 학교교육에서의 메이커 교육 구성 요소 탐색(Kwon et al., 2020) 등이 있다. 교육학 관련 영역 중에는 유아교육 분야의 Q방법론 연구가 활발한데 보육교사 이미지(Kim & Kim, 2013; Lee, 2020),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에 대한 인식(Kim & Kim, 2015; Park & Seo, 2018)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Q방법론을 핵심어로 한 연구로 Wang과 Nam(2008)의 ‘예비 가정교사들의 가정교과 이미지 유형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예비 가정교사가 인식하는 가정과교육의 성격과 정체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로,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① 사회의 적응을 위한 교과, ② 편견으로 소외된 교과, ③ 삶의 기본요소를 알려주는 교과, ④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 ⑤ 개인적 성숙을 강조하는 교과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교과에

대한 고정관념, 역사성,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가정교과의 성격 및 타교과 구별되는 독자성의 확립을 위해 Q방법론의 접근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가설 탐색적 특성을 가진 Q방법론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가정교과 내용요소와 관련해 Q방법론을 적용한 의미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 인식(Kim, Nam, Park, & Park, 2014), 부모역할 인식(Jin & Lee, 2019), 부모의 자녀가치 인식(Kim & Lee, 2020), 손자녀 양육 인식(Kim, 2015),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 인식(Park, Yoo, & Chung, 2017), 독신여성의 싱글생활(Wang & Ryu, 2013), 입양가족 적응과정 인식(Ok & Ryu, 2013) 등이 있다. 심리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정치학 등으로 꾸준히 활용의 외연을 확장한 Q방법론(Kim, 2016)은 특히 실용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크다. 사회현상에 대한 처방을 강구하는 경우, 사회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Q방법론은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을 확인하는 데 큰 효용성을 갖는다(Kim, 2016). 그리고 가정과교육은 어떤 사회현상을 다룸에 있어 기존의 인습과 관습에서 벗어난 깨어남(enlightenment)과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행동(empowerment)의 교육을 추구한다(Chae et al., 2017).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은 주어진 사회현상에 직면해 그 안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와 해결방안의 발견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의 추구에 Q방법론의 실용적 효용성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이 남자 가정과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가정교과의 교사는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특정 교과에 여성 혹은 남성이 몰리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는 학교 현실에서, 이 연구는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 되며 인식의 각 구조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식의 주관성 구조를 밝히는 데 유용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Lee & Shim, 2018).

이 연구는 Q방법론 연구의 일반적 실행절차(Kim, 1992; Kim, 2016)에 따라 진행하였고 <Figure 1>은 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Q방법론을 적용한 이 연구는 먼저 Q모집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Q표본의 선정 즉 Q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를 P표본에 의해 Q분류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 Q모집단 구성

Q모집단이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들의 집합체로, 한 문화 안에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의 개념과 동일하다(Kim & Cha, 2008). 즉 Q모집단은 특정 주제에 대한 총체적인 생각들을 의미한다(Gong, Jun, & Lee, 2021).

Q방법론의 연구 타당성은 Q표본의 설계가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인터뷰와 문헌조찰 등의 경로를 통해 Q표본을 설계함으로써 표본의 포화상태를 높여야 한다(Wang & Nam, 2008). 이 연구는 선행연구, 문헌연구, 인터넷 자료, 인터뷰를 통해 Q모집단을 수집하였다. 먼저 가정교육과 관련한 단행본을 검토하였고, KCI 논문검색 엔진을 통해 ‘남자 가정교과사’를 비롯해 전통적으로 여성 영역으로 여겨지는 직군에서 일하는 ‘남자 보육교사’ 및 ‘남자 간호사’의 선행연구를 살폈다. 또 ‘좋은 교사상’ 관련 최근 논문도 알아보았다. 인터넷 자료도 검토하였는데, 종합포털사이트에서 ‘남자 가정교과사’, ‘남자 보육교사’, ‘남자 간호사’와 관련한 최신 자료도 참조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서면질의를 수도권 내 고등학교 10명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강·약점,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들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2. Q표본의 구성

Q모집단은 Q표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Q모집

단에서 Q표본 즉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고등학교의 표상체계로 구성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Q표본의 추출과정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로 Q모집단에서 추출한 진술문을 가족학 전공자 3인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읽으면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비슷한 의미의 진술문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100개의 진술문에서 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Q연구 경험이 있는 가족학 및 교육학 연구자 2인에게 진술문의 타당성을 의뢰 받아 최종 40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최종 진술문으로 확정된 Q표본은 <Table 1>과 같다.

3. P표본

P표본은 확정된 최종 진술문인 Q표본을 Q분류하는 연구 참여자를 말한다. Q연구의 목적은 모집단에 대한 어떤 결과를 산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표본의 선정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다(Kim & Kim, 1998). 다시 말해 Q방법론은 주제와 관련된 관점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이는 표현하고자 하는 정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Watts & Stenner, 2014). 또 P표본의 크기는 개인이나 20-30명 내외가 적정하며, 소집단은 특정집단을 대표한다고 간주한다(Kim, 2008b).

이 연구에서는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인식은 가정교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가정교과의 경험을 중요하다고 보고, P표본 선정에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째, P표본 선정 시 가정교과에의 노출경험이 많도록 구조화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였다. 동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정」교과와 고등학교 2-3학년 때 「가정과학」교과를 경험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둘째,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인식에 남학생과 여학생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자 남녀 성별을 맞추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내 남녀공학인 H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명(남학생 16명, 여학생 15명)이 P표본으로 선정되었다(Table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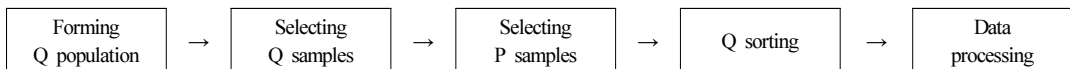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process

Table 1. Q sample (Q statements)

No	Statements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2	It is not right to have certain expectations just because the teacher is 'male'.
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considerate and meticulous.
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a stronger sense of mission than teachers of other subjects.
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a new challenge.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teach at a boys' school, and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t a girls' school.
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students with a stern charisma in certain situations.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pset abo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a man teaching home economics.
1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female students' needs.
1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rare, so students might like them.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less strict and tolerate students not paying attention in class.
15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in school.
1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receive attention just for being 'male' except for once or twice at first.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among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1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perform many tasks that require strength or are related to computers at schools where there are many female teachers.
2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really helpful for students to find their career paths.
2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requently carry out activities like sports to be closer with students.
2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because students frequently ask why they chose home economics.
23	I think the social perception that considers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trange is even stranger.
2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the subject with more active contents.
2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a new perspective and viewpoint about home economics.
2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ore suitable for helping male students better engage in family life.
2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ake male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about openly discussing matters such as sexuality or family life.
2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ender equality of family life.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31	I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teach how to take care of children or cook, our society's gender equality will be achieved soon.
3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absolutely necessary to break down the stereotype that only women should take care of all the household affairs.
3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help change the image of home economics subject.
3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help understand the father's and son's perspectives on family life.
3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matters like resource management or safety better than childcare or cooking.
3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en that are suitable for the modern society with both masculine and feminine sides.
3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scientific thinking about family life.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3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family-oriented and have a happy family life.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4. Q분류(Q sorting)

Q분류란 P표본으로 선정된 각 대상자가 특정 주제나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 속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 시키는 것으로, 진술문을 읽은 뒤 그 진술문을 강제분포(forced-distribution)시키는 과정을 말한다(Kwon, Kim, & Kim, 2009). 이 연구는 최종 완성된 진술문을 카드 형태로 제작한 Q카드를 Q sorting 분포도에 따라 분류하였다(Figure 2). Q분류 전 P표본이 분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분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익명으로 진행되며, 비밀을 보장한다는 사실과 연구 중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도 제시하였다.

Q분류 방법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40개의 진술문을 카드 형태로 만든 후 P표본으로 하여금 그것을 여러 번 읽도록 하여 진술문 전체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40개의 진술문을 내용에 따라 ‘매우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 ‘중립’의 세 범주로 우선 분리하도록 하였다. 이어 매우 동의하는 진술문을 오른쪽 바깥(+5)부터 차례대로 준비한 점수표 위에 놓도록 하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왼쪽 바깥(-5)부터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남은 중립의 카드도 동의 정도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였다. Q카드 분류를 1차로 마친 후 자신이 배치한 진술문을 살피면서 다시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후 유형에 대한 해석의 참조를 위해 매우 동의한 2개의 Q카드와 매우 동의하지 않은 2개의 Q카드에 대해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Q분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가장 왼쪽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 문항(-5)에 1점을 부여하였고, 차례로 점수를 매겨 가장 오른쪽의 ‘매우 동의’ 문항(+5)은 11점으로 점수화하는 코딩과정을 거쳤다. 코딩자료는 QUANL PC progra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Q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은 QUANL과 PQMethod 등이 있는데 이 연구는 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QUANL은 설명변량의 극대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자료입력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l et al., 2020). 이 연구는 QUANL PC program 처리에 따라, 각 문항을 표준점수(Z-score)화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대부분이 요인분석 시 요인의 로테이션을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으로 진행하는데(Kim, 2018) 이 방식은 요인 간 차이를 극대화시켜 유인 간 주관성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2016). 이 연구도 배리맥스 회전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확정하기 요인적재치(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

40개의 진술문에 대한 P표본의 Q분류 결과를 QUANL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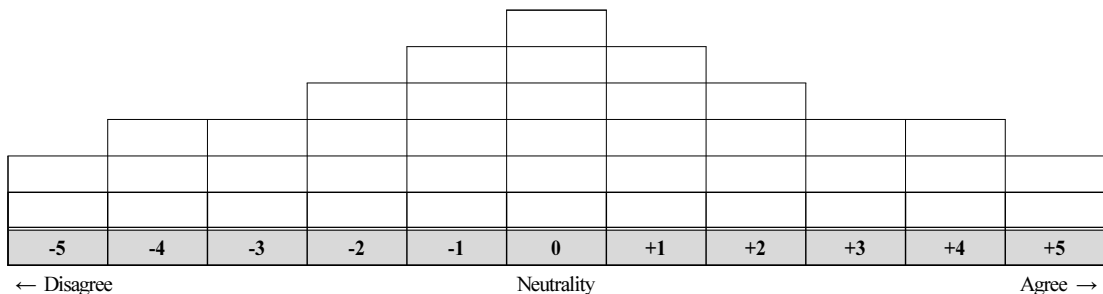


Figure 2. Q sorting distribution

program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은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인식 상태에 따라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P표본끼리 묶였기 때문에 각 유형을 통해 유형별 인식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나타났듯이 유형 1~유형 4의 아이겐 값은 각각 17.62, 1.63, 1.29, 1.21이다. 네 개 유형의 전체변량은 70.1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유형 1은 56.85%, 유형 2는 5.24%, 유형 3은 4.15%, 유형 4는 3.89%이다.

Q방법에서 요인 간 상관관계는 각 요인 간의 완전한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유형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상관관계의 높고 낮음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Kim, 2008a),

Table 2. Variance analysis

Factor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Eigen value	17.62	1.63	1.29	1.21
Variance explained(%)	.57	.05	.04	.04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57	.62	.66	.70

Table 3. Correlations

Variable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			
Type 2	.67	1.00		
Type 3	.79	.73	1.00	
Type 4	.77	.64	.73	1.00

Table 4. P sample

Type 1(N=9)		Type 2(N=6)		Type 3(N=10)		Type 4(N=6)	
P sample	Factor weights	P sample	Factor weights	P sample	Factor weights	P sample	Factor weights
P8(M)	1.28	P2(F)	2.66	P3(M)	1.78	P1(M)	.86
P9(F)	1.35	P6(F)	.68	P4(M)	.75	P5(F)	.91
P11(M)	1.22	P16(F)	.72	P7(F)	.74	P10(M)	1.42
P12(F)	1.24	P18(M)	.75	P15(F)	.88	P13(F)	.68
P14(M)	2.62	P22(M)	1.77	P17(F)	.91	P23(F)	.64
P20(M)	.76	P29(M)	.98	P19(F)	1.02	P24(M)	1.38
P25(F)	.85			P21(M)	.68		
P26(F)	.69			P28(M)	.86		
P27(F)	.81			P30(M)	.95		
				P31(M)	1.62		

상관계수를 통해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Table 3>에 따르면, 유형 1과 유형 2는 .67, 유형 1과 유형 3은 .79, 유형 1과 유형 4는 .77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 .73, 유형 2와 유형 4의 경우는 .64이다. 유형 3과 유형 4의 상관관계는 .73이다.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 인식유형의 인자가중치는 <Table 4>가 말하고 있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을 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1은 P14(2.62), 유형 2는 P2(2.66), 유형 3은 P3(1.78), 유형 4는 P10(1.42)이 유형을 대표하는 인식을 가진 전형적 학생이다. 또 <Table 5>은 각 유형별로 40개 진술문의 표준점수이다.

2.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 특성

이제 고등학생의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네 가지 인식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별 특성은 각 유형에 분류된 P표본의 동의·비동의 문항과 함께 Q분류 시 가장 동의한 문항과 가장 동의하지 않은 문항에 대한 이유를 참조하였다.

1) 유형 1 : 개인 특성 증시형

유형 1은 남자 가정선생님의 ‘남자’라는 성과 담당과목인 ‘가장’을 교사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Table 5. Statement in Q set and type Z-scores

No	Statements	Type 1	Type 2	Type 3	Type 4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1.98	1.36	.62	1.81
2	It is not right to have certain expectations just because the teacher is 'male'.	1.39	.04	.64	1.08
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considerate and meticulous.	.14	.48	-.09	.21
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a stronger sense of mission than teachers of other subjects.	-.08	-.93	-.27	-.31
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a new challenge.	.34	-.42	.79	1.65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18	-2.23	-2.26	-2.28
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teach at a boys' school, and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t a girls' school.	-1.62	-.55	-1.41	-1.46
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students with a stern charisma in certain situations.	-.52	-.79	-.39	.46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61	-.62	1.16	1.16
1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pset abo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a man teaching home economics.	.67	1.07	.81	1.22
1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female students' needs.	-1.26	-.99	-.53	.12
1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rare, so students might like them.	.35	-.83	.73	-.43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61	-1.14	-1.27	-.93
1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less strict and tolerate students not paying attention in class.	-.64	-1.79	-.97	-.88
15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in school.	.54	.51	.60	.62
1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receive attention just for being 'male' except for once or twice at first.	.93	-.04	-.39	.57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72	1.51	1.53	2.07
1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among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74	.15	-.54	.14
1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perform many tasks that require strength or are related to computers at schools where there are many female teachers.	-.12	-.23	-.51	-.42
2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really helpful for students to find their career paths.	.85	-.15	.94	-.46
2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requently carry out activities like sports to be closer with students.	-1.13	.06	-.45	-.23
2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because students frequently ask why they chose home economics.	.22	.04	-.36	-.99
23	I think the social perception that considers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trange is even stranger.	1.48	2.07	1.64	1.08
2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the subject with more active contents.	-1.20	-.50	-.52	-.35
2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a new perspective and viewpoint about home economics.	-.12	.46	.74	-.23
2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ore suitable for helping male students better engage in family life.	-.77	.93	.40	-.32
2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ake male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about openly discussing matters such as sexuality or family life.	.51	.88	1.29	-.07
2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ender equality of family life.	.61	1.59	.24	-.01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41	-1.84	-1.80	-1.37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86	.12	-1.82	-1.35
31	I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teach how to take care of children or cook, our society's gender equality will be achieved soon.	.17	.52	-.03	-.10
3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absolutely necessary to break down the stereotype that only women should take care of all the household affairs.	.38	.94	.93	-.36
3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help change the image of home economics subject.	-.32	.77	.66	.19
3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help understand the father's and son's perspectives on family life.	.43	.04	-.32	.95
3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matters like resource management or safety better than childcare or cooking.	-.35	-.45	-.08	-.14
3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en that are suitable for the modern society with both masculine and feminine sides.	.87	.28	-.62	.29
3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scientific thinking about family life.	-.61	-.21	-.41	.38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92	-1.41	-1.46	-1.86
3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family-oriented and have a happy family life.	-.04	-.66	.53	-1.13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1.32	1.97	2.23	1.69

<Table 6>에서 보면 이 유형은 Q1 ‘남자 가정선생님은 다른 교과의 남자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항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이며, Q6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것 같다’는 문항에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Table 7>에서 나타났듯이 유형 1과 타 유형과의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은 Q9 ‘남자 가정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정교과를 가르치므로 꿈을 이룬 선생님이다’($t=1.04$)이다. 이들은, 남자 가정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정을 선택해 가정교사가 된 것”이라고(P12)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가장 큰 부정의 진술문은 Q26 ‘남자 가정선생님은 남학생들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t=1.11$)이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만 다른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다(P20). 직업은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기량으로 갖는 것”(P11)으로, 가정선생님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P9)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 특성을 나타낸다.

유형 1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4(2.62, Table 4 참조)는, “남자 가정선생님이 다른 교과 남자 선생님들과 다른 점은 가르치는 교과가 다른 것 빼고는 없다”고 하였다. 또 가장 비동의를 표한 Q24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수업을 보다 활동적인 내용으로 가르칠 것 같다’의 경우 그 이유를 “여자 선생님도 충분히 활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의 유형 1에 속한 P표본이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 상세 기술한 내용을 보면, 남자 가정선생님은 다른 교과와 “똑같은”(P12, P27), “다 같은”(P9, P11, P26), “특별하지 않은”(P20), “다를 것이 없는”(P14, P11), “별 차이 없는”(P11) 선생님이란 인식이 두드러졌다. “여자든 남자든 가정교과를 좋아하고 재능을 가질 수 있”으며, “그저 남자인 가정선생님 뿐”이기에 “가정선생님이 남자라고 다르게 본다는 것은 아주 큰 편견”이라는 것이다(P9). 남자 가정선생님은 다른 교과의 남자 선생님들처럼 “공부들

Table 6. Type 1 statements with Z-scores larger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1.98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72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61
2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because students frequently ask why they chose home economics.	1.48
2	It is not right to have certain expectations just because the teacher is ‘male’.	1.39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1.32
2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requently carry out activities like sports to be closer with students.	-1.13
2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the subject with more active contents.	-1.20
1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female students’ needs.	-1.26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41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61
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teach at a boys’ school, and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t a girls’ school.	-1.62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18

Table 7. Type 1 statements with the difference score larger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61	-.57	1.04
2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ore suitable for helping male students better engage in family life.	-.77	.34	-1.11

잘 해” 사범대학에 진학하였고, “똑같은 교육절차”를 밟은 선생님이라 주장한다(P12).

2) 유형 2 : 교과 중시형

유형 2는 남자 가정선생님을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이 강하다. 즉 남자 가정선생님을 여자 가정선생님과 마찬가지로인 ‘가정’ 선생님이로 바라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Table 8>에서 알 수 있듯이 유형 2는 Q23 ‘남자 가정선생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이며, Q6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것 같다’는 문항에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2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2(2.66, Table 4 참조)는 가정교

과 선생님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체육 선생님만 봐도 요새는 여자, 남자 구분 없이 모두 교직에 계시는데 가정 선생님도 다름없다”고 말하며, 가정교과의 가르침을 받는데 선생님의 “성별은 상관없다”고 한다.

한편 진술문 중 유형 2와 타 유형과의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Table 9)은 Q30 ‘남자 가정선생님은 임신과 출산 같은 여성의 경험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t=1.46)이다. “남자 가정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도 모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친다(P6, P18)는 상세 기술에서 가정교과의 내용에 주목하는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유형 2의 가장 큰 부정의 진술문은 Q9 ‘남자 가정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정교과를 가르치므로 꿈을 이룬 선생님이다’(-1.93)로, 유형 2는 남자 가정선생님이 ‘드물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르고 좋아할 것 같다’거나,

Table 8. Type 2 statements with Z-scores larger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2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because students frequently ask why they chose home economics.	2.07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1.97
2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ender equality of family life.	1.59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51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1.36
1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pset abo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a man teaching home economics.	1.07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14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1.41
1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less strict and tolerate students not paying attention in class.	-1.79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84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23

Table 9. Type 2 statements with the difference score larger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12	-1.34	1.46
2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ender equality of family life.	1.59	.28	1.31
2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ore suitable for helping male students better engage in family life.	.93	-.23	1.16
1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rare, so students might like them.	-.83	.22	-1.05
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a new challenge.	-.41	.93	-1.35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6.15	1.31	-1.93

‘새로운 도전을 실천한 멋진 선생님이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남자 가정선생님이 ‘처음에는 생소해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남녀평등과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P2)에서 가정교과에 남자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크게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3) 유형 3 : 역량 중시형

유형 3은,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교과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생님’이라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남자 가정선생님의 역량을 중시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형 3은 Q40 ‘가정교과를 배우는데 남자 선생님이거나 여자 선생님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문항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이며, Q6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것 같다’는 문항을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Table 10). 유형 3과 타 유형과의 차이에 관한 내용으로, Q39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적이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실 것 같다’($t=1.14$)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긍정의 문항이며, 가장 큰 부정의 진술문은 Q30 ‘남자 가정선생님은 임신과 출산 같은 여성의 경험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t=-1.12$)이다 (Table 11).

유형 3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3(1.78, Table 4 참조)은 중학교 때 남자 선생님께 배운 경험을 말하며 남자 가정선생님은 “살림도 잘하시고, 오히려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살림살이를 잘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가정선생님은 “직업 특성상 여자가 많은 것 뿐”이라고 말한다. 그 밖에 가장 동의·비동의 항목에 대한 P표본의 상세이유를 살펴보면, “가정 과목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남자 가정선생님이 못 가르치실 이유가

Table 10. Type 3 statements with Z-scores larger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2.23
23	I think the social perception that considers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trange is even stranger.	1.64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53
2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ake male students feel more comfortable about openly discussing matters such as sexuality or family life.	1.29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16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27
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teach at a boys' school, and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t a girls' school.	-1.41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1.46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80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1.82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26

Table 11. Type 3 statements with the difference score larger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3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family-oriented and have a happy family life.	.53	.61	1.14
1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rare, so students might like them.	.73	-.30	1.03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62	1.72	-1.09
3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men that are suitable for the modern society with both masculine and feminine sides.	-.62	.48	-1.10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1.81	-.70	-1.12

없'(P4)다. 남자 가정선생님도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다”(P7)고 한다. “엄마보다 아빠가 바느질을 더 잘 하신다”는 P15는 “남자가 청소, 빨래 같은 살림을 못 가르칠 것 같다는 말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다. “남자라고 바느질이나 요리를 못할 것”이 없으며(P30), 젊은 여자 선생님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해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하면서(P17), 임신과 출산이 모든 여성의 공통된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유형 3은 “남자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 처음부터 못 가르칠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P28), 남자 가정교사가 임신과 출산의 여성경험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편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4) 유형 4 : 인성 중시형

유형 4는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이라는 교과에 도전한 선생님이라는 교사의 인성적 특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형 4에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Q17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그냥 남자인 가정선생님이다’이며, Q6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것 같다’에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Table 12). 유형 4의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0(1.42, Table 4 참조)은 교과목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본다. 누구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되었다”고 말하며 교사의 인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Table 13>는 유형 4와 타 유형과의 차이에 관한 내용으로, Q5 ‘남자 가정선생님은 새로운 도전을 실천한 멋진 선생님이다’($t=1.42$)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동의의 진술문이다. “가정선생님이 되는 과정도 힘들었을 텐데 현재 남자 가정선생님을 이상하게 보는 편견을 감내하고서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가는 모습이 멋지”고(P24), “자신의 꿈을 좇아 이뤄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하며(P5), 남자 가정선생님의 도전 정신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Q32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이 가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선생님이다’($t=1.11$)의 진술문을 가장 큰 강도로 부정하였다.

3. 일치항목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이란 각 유형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항목을 말한다(Lee & Shim, 2018). 이 연구에서 분석한 네 유형에서 일치한 항목은 ± 1.00 이상의 높거나 낮은 점수를 나타낸 18개의 진술문이다(Table 14).

Table 12. Type 4 statements with Z-scores larger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2.07
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male teachers of other subjects.	1.72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1.69
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a new challenge.	1.65
1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pset abo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a man teaching home economics.	1.22
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hose who fulfilled their dreams by teaching the subject they like.	1.16
23	I think the social perception that considers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trange is even stranger.	1.08
2	It is not right to have certain expectations just because the teacher is ‘male’.	1.08
3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family-oriented and have a happy family life.	-1.13
3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women’s experience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1.35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37
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hould teach at a boys’ school, and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t a girls’ school.	-1.46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1.86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28

Table 13. Type 4 statements with the difference score larger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great teachers who took up a new challenge.	1.65	.24	1.42
11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difficulties understanding female students' needs.	.12	-.93	1.05
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students with a stern charisma in certain situations.	.46	-.57	1.03
2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really helpful for students to find their career paths.	-.46	.55	-1.00
3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family-oriented and have a happy family life.	-1.13	-.06	-1.07
32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absolutely necessary to break down the stereotype that only women should take care of all the household affairs.	-.36	.75	-1.19

Table 14. Consensus items

No	Statements	Z-score
40	In learning home economics, it is not important whether the teacher is male or female.	1.80
1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just teachers that are male who teach home economics.	1.71
23	I think the social perception that considers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strange is even stranger.	1.57
10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pset abou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a man teaching home economics.	.94
15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in school.	.56
2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a new perspective and viewpoint about home economics.	.21
3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be considerate and meticulous.	.19
31	I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teach how to take care of children or cook, our society's gender equality will be achieved soon.	.14
37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ill contribute to developing scientific thinking about family life.	-.21
18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feel uncomfortable among female home economics teachers.	-.25
35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matters like resource management or safety better than childcare or cooking.	-.26
1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perform many tasks that require strength or are related to computers at schools where there are many female teachers.	-.32
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have a stronger sense of mission than teachers of other subjects.	-.40
24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teach the subject with more active contents.	-.64
13	It is better for female teachers to teach home economics.	-1.23
38	I am worried how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would teach practical work like sewing and cooking.	-1.41
29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might not teach well about the practical details of housework such as cleaning, laundry, and cooking.	-1.61
6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are taking away a woman's job.	-2.24

네 유형 간 공통적으로 동의한 진술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Q40 '가정교과를 배우는데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가는 중요하지 않다'(Z=1.80)이다.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남자교사이고, 이런 남자교사를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이상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또 네 유형 모두 Q17 '남자 가정선생님은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그냥 남자인 가정선생님이다', Q23 '남자 가정선생

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에도 비교적 높은 점수로 동의하였다.

반면 네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Q6 '남자 가정선생님은 여성의 직업을 빼앗는 것 같다'(Z=-2.24)이다. 그 밖에도 Q13 '가정교과는 여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38 '남자 가정선생님이 바느질과 요리 같은 실습을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된다', Q29 '남자 가정선생님은

청소, 빨래, 요리와 같은 살림살이의 실질적 내용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에도 비교적 높은 점수로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도출하는 데 가장 적합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 문제 즉 인식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식유형별 특성이 어떠한지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은 4개로 나타났으며, 각각을 개인 특성 중시형(유형 1), 교과 중시형(유형 2), 역량 중시형(유형 3), 인성 중시형(유형 4)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 1은 개인 특성 중시형으로, 전체 유형의 설명력 70.14% 중 56.85%를 차지할 정도로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남자 가정과교사의 '남자'라는 성과 담당 교과인 「가정」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며, 따라서 개인적 특성에 덧붙인 그 밖의 의미 부여에 거부감을 보였다. 즉 남자 가정과교사를, 남자로 태어나 자신이 선택한 「가정」이라는 교과의 선생님이 되었기에 자신의 꿈을 이룬 선생님 정도로 인식한다. 이렇게 유형 1은 획득지위인 남자라는 '성'이 개인의 특성인 것처럼, 직업으로 선택한 「가정」교과의 교사라는 성취지위 역시 개인의 특성으로 바라본다.

남자 가정과교사의 '남자'라는 성을 단지 개인의 특성으로 여길 뿐 특별하게 보지 않은 유형 1의 인식은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연구한 Kim(200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Kim(2008)은 남녀 청소년 모두 남성성에 비해 여성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다고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권의 증진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변화가 여성성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가정'을 여성성과 연동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유형 1의 인식 특성을 뒷받침해 준다. 또 유형 1은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를 본인이 원해 선택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의 직업

가치관을 연구한 Shin(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체로 돈·권력·사회적 위신(명성)과 같은 외적 직업가치보다 소질과 적성, 봉사, 새로운 시도와 같은 내적 직업가치가 더 강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유형 1은, 남자 가정과교사는 다른 교과의 남자교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적 가치에 의해 교과를 선택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존중 받아야 할 개인 특성일 뿐이며 과도한 기대나 성에 따른 일반화에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유형 2는 교과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를 가정이라는 교과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 이 유형에서 가장 강도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남자 가정선생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이다. Z값의 절대값은 진술문의 동의 또는 비동의의 강도를 의미하는데, 이 진술의 Z값(2.07)은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동의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형 2의 이러한 인식은, "지금의 학생들은 가정과목에 대한 흥미"가 있지, 가정교과를 "남자교사가 가르치는지, 여자교사가 가르치는지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연구결과(Ahn & Park, 202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형 2는 유형 1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67$)를 보이지만 2개의 진술문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먼저 '남자 가정선생님은 남학생들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적합하다'에서 차이가 나타나, 유형 2는 동의를 표한 반면 유형 1은 동의하지 않았다. 즉 유형 2는 "남자 가정선생님은 남학생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어 선생님을 편하게 느낀다"것이라 말한다(P18). 이러한 맥락에서 타 유형과 달리 유형 2가 '남자 가정선생님은 임신과 출산 같은 여성의 경험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에 동의를 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형 2는 남자 가정선생님은 남성이므로 남학생들의 학생지도에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경험으로 생각해 교수자로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남자 가정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정교과를 가르치므로 꿈을 이룬 선생님이다"는 진술에 유형 1은 동의한 반면 유형 2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2는 양성평등한 현대사회에서 가정 선생님이 "여자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P2), 그리고 "「가정」이라는 과목이 여성의 소유물"도 아니기에(P22) '꿈을 이룬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 3은 역량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선생님’이라는 인식적 특성을 보인다. 유형 3이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가정교과를 배우는데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가는 중요하지 않다’로, 전체 40개의 진술문 중 가장 높은 강도로 동의를 표했다($Z=2.23$). “가정교과 선생님을 정당한 방법으로 되셨”기 때문에, “가정 선생님이 되셨다는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가정과목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4). 이 연구의 31명의 전체 P표본 중, 중학교 때 남자 가정선생님께 배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이 2명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모두 유형 3에 속하고 있다(P3, P21).

유형 3은 유형 1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r=.79$). +1 이상의 5개 Z값 중 4개가 유형 1과 같다. 그러나 -1점 이상의 6개 Z값 중 2개가 유형 1에 없는 비동의 진술문으로, 여기에서 유형 1과 다른 유형 3의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유형 3은 “남자 가정선생님이 바느질과 요리 같은 실습을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된다”와 “남자 가정선생님은 임신과 출산 같은 여성의 경험을 잘 가르치지 못할 것 같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유형 3은,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과교사이므로 여자 가정과교사에 비해 특정한 것을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동료, 가족, 친구들이 남자 가정과교사를 향해 ‘당연히 요리, 바느질 등을 잘 한다고 인식’하는 것(Ahn & Park, 2020), 가정교과를 ‘가정생활을 강조하는 교과’ 즉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라 인식하는 것(Wang & Nam, 2008)에서 이러한 인식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 3은 가정교과에 대한 남자 가정과교사의 유능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의 교사로서 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좋은 교사는 교과 지도력과 수업 기술의 전문성을 지닌 수업 전문가이고(Shin & Kim, 2017), 가정과교사 자격증을 가진 가정교사는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교과 교육적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유형 3은,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과교사 자격증 취득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밟은 전문가로 인식하여 가정교과에 담긴 내용은 모두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을 갖춘 교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4는 인성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이라는 교과에 도전한 멋진 선생님이라며 교사의 인성적 특

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형 4는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남자 가정과교사의 위치와 상황을 생각하는 인식적 특성을 나타낸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성 고정관념을 조사한 연구(Kim & Kim, 2003; Tak, 1995)에 따르면, 광원,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정비원, 직업군인, 건설현장감독, 중장비기사, 소방공무원 등은 남성적 직업이고, 유치원교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서, 간호사 등은 여성적인 직업이다. 유형 4는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사회 현실을 알기에 남자 가정과교사는 우리 사회의 직업 성 고정관념을 타파한 교사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남자 가정과교사의 정체성을 탐구한 Ahn과 Park의 연구(2020)에 따르면, 남자 가정과교사는 중등학교 가정교과의 교사가 되기까지 ‘편견을 깨는 사람’, ‘두렵지만 설레는 경험’, ‘현실의 벽을 넘어’로 응축되는 경험을 하면서 ‘양성평등의 대표주자’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유형 4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d=1.42$)로 ‘남자 가정선생님은 새로운 도전을 실천한 멋진 선생님이다’라는 진술문에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들은, 남자 가정선생님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한다(P24). 유형 4와 유형 2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64$)를 보이는데 이 진술문에서 유형 2와 다른 인식특성이 드러난다. 즉 유형 4가 동의한 이 진술문에 유형 2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유형 4는 직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단단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남자 가정과교사의 인성적 측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확고한 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정교화 해야 한다(Chung, 1998). 심리적으로 건강한 가족은 청소년을 보다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하고, 가족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독립성 증가에 대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적응함과 동시에 이들의 자율성 성취를 격려한다(Santrock, 2004). 청소년기 자율성은 부모나 교사 등 이동기 때 의존했던 대상으로부터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의 추구를 통해 청소년은 자기를 이해하고 정체감을 확립해 간다.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청소년기의 이

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가장 대표적 인식은 개인 특성의 중시였다(유형 1). 이들에게 ‘남자 가정과교사’란 ‘남자’라는 성과 ‘가정교과’라는 직업을 말할 뿐이며, 이것은 개인적인 특성일 뿐이다. 또 남자 가정과교사는 그냥 남자인 가정교사라는 인식은 네 유형 모두가 동의한 항목이다. ‘그냥’에는 남자 가정과교사에 어떤 의미나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 의의가 담겨있다. 청소년에게 남자 가정과교사는 교사 자신의 지극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기 가치에 의해 선택된 직업이며, 따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개인적 선택이라 여긴다(유형 1, 유형 2). 자율성, 독립성, 개별화를 추구하는 청소년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성 고정관념의 인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성별이 아니라 가정교과의 교과 성격과 좋은 교사의 자질이였다.

교사의 전문성(유형 3)과 교사의 인성적 자질(유형 4)은 좋은 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교사의 핵심 업무는 가르치는 일로써 수업 전문성은 교육행위의 출발점인 동시에 교사의 다른 행위의 기준이 된다(Chae, Park, Kim, & Heo, 2013). 학교현장에서 수업하는 가정과교사는 가정과 철학, 정체성, 목적과 목표를 비롯해 좋은 가정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받으며, 학교 교단에 서기 까지 이러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자라는 이유로 가정교과에 대한 교과전문성에 의문을 갖는 것은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무례한 시선이다(유형 3). 특히나 가정교과는 기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데(Chae et al., 2017), 학습자인 고등학생이 보기에 남자 가정과교사는 성과 직업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한 교사였다(유형 4). 즉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실천한 멋진 교사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해 학습자인 청소년은 ‘남자’라는 성 보다는 남자 가정과교사가 진행하는 가정수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가정수업 전반에서 가정교과의 정체성과 목표가 반영되도록 힘써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내적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정교과의 내용요소를 학습자의 가족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자기관리 등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과 연결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고,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하여 자신의 고정관념을 확인할 뿐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도출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주관적 인식은 가정교과의 정체성과 목표를 반영한 가정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연구의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인식을 학습자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 관점은 가정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및 가정과교사 및 관련 분야의 진출을 희망하는 진로교육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직업 성 고정관념을 탈피한 유아교육 분야의 남자 예비교사와 남교사, 간호 분야의 남자 예비간호사와 남자 간호사 등은 일찍이 관련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입이 해당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이에 반해 남자 가정과교사에 관한 연구는 정체성 연구(Ahn & Park, 2020)가 이제 막 시작한 정도이다. 가정과교육이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비로소 남녀공통 이수 교과목이 되었다는 역사성과 직업 성 고정관념이 대표적인 성 고정관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정과교육에서 남자 가정과교사, 남자 예비가정과교사,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가정과교육 경험 등, ‘성’을 둘러싼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과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과 집단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Chae et al., 2017),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이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태도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정체성은 자신이 주인이 된 삶 속에서 확보되며, 내적 경험인 주관성은 정체성 형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관성(various subjectivity)은 최적화된 객관성(optimal objectivity)을 생산한다(Kim, 2020). 가정과교육은 다양한 생활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천적 문제해결 교과이다(Wang, 2003). 이때의 실천 개념은 제작·생산 활동 또는 지식의 실용성 이상의 의미로, 현실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 정의롭고 선한 세계로의 변화를 위한 주도적 행동을 말한다(Chae et al., 2017). 이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학습자의 주관성을 탐색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Q방법론은 교육학, 간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에 Q방법론을 주제로 한 연구는 Wang과 Nam(2008)이 유일할 정도로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속성인 선호, 감정, 이상, 아름다움, 취향 등을 측정하는 연구로(Kim, 1992), 자아(self)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가정교과교육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개인의 자아형성의 성숙과 깨어있는 가정인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체계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다(Chae et al., 2017). 또 가정교과교육에서 개인의 자아탐색 특히 학교교육 측면에서 학습자인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형성은 중요한 내용요소이다. 가정교과교육의 목적과 사명, 가정교과교육에서 자아탐색의 의미를 고려할 때 Q방법론의 활용 가치는 매우 크며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P표본 구성에서 다음의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P표본이 고3 학생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의 P표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였고 이것은 가정교과 이수 경험이 많은 표본을 의도적으로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남자 가정교과사에 대한 이들의 인식에는 입시압박에 시달리는 고3 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었고 그것은 이 연구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둘째, 가정교과의 노출이 많은 P표본의 의도적 구성이 갖는 한계이다. P표본에는 ‘그 주제에 관해 정보가 어둡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추천하고 있다(Kim, 1992). 이 연구의 P표본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을 거치면서 필수교과인 「기술·가정」교과목을 이수하였고, P표본이 속한 H 고등학교는 「가정과학」까지 선택교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따라서 P표본은 타 학교의 고등학생보다 가정교과의 경험이 많다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추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n, J. H., & Park, M. J. (2020). A narrative inquiry of the identities of male home economics teach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2), 159-178. doi: 10.19031/jkheea.2020.06.32.2.159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7). *가정교과교육론 (제2판) [Instr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Paju: Kyomunsa.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eo, Y. S. (2013). *가정교과 수업 방법과 수업실연 (제3판) [Teaching method and public presentation of home economics]*. Paju: Kyomunsa.
- Cho, G. H. (2016, November 8). Being a good husband requires a male mentor (멋진 남편 되는 법, 남자가 가르쳐야 제격).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108/81215020/1>
- Cho, H. J. (2001). Gender stereotype: Why not disappear?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3), 107-125.
- Cho, S. H., & Park, H. S. (2019). A study on changes in parents' recognitions of mal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young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and Education*, 2(2), 43-60.
- Choi, J. H., & Lim, W. S. (2012).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s' and female teachers' perceptions of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65-183. doi: 10.5723/KJCS.2012.33.2.165
- Choi, Y. C. (2003). Male teac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3), 25-43.
- Choo, K. S., & Sin, J. H. (2015).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curriculum integration and types of restructuring.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1), 120-137. doi: 10.15812/ter.54.1.201503.120
- Chun, B. H. (2009). A study on women's employment pattern and expanding women's employment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in Korea: With specific reference to occupations of aviation.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7(1), 143-160.
- Chung, O. B. (1998). *청년발달의 이해 [Understanding Adolescence*

- Development*]. Seoul: Hakjisa.
- Gee, S. Y., & Yang, J. W. (2017). Narrative inquiry on the career decision process of females in male-dominated occupations.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5(1), 25-48. doi: 10.25051/jner050102
- Gong, D. Y., Jun, M. K., & Lee, S. Y. (2021). A subjectivity on the perception of counselors' self-care.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8(2), 107-123. doi: 10.20496/cpew.2021.8.2.107
- Han, D. K. (2020). An exploratory study of the types of percep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elementary-school teachers: Q-methodological approach. *Social Studies Education*, 59(4), 161-178.
- Han, H. (2018). Stories of male pre-service teachers' career design and role expectations as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3(1), 111-136. doi: 10.20437/KOAECE23-1-05
- Han, J. H., & Chang, J. Y. (2005).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job search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eniors who want either male-dominated or female-dominated job.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8(3), 585-609.
- Hwang, B. G. (2015, February 10). A Kyungnam University male graduate passed home economics teacher appointment (경남대 남자 졸업생, 가정과 교사임용 시험 합격).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50210147700052?input=1195m>
- Jin, J. A., & Lee, W. H. (2019). A study on the recognition type of parent role: Q methodology.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23(1), 155-172. doi: 10.35184/kshce.2018.23.1.155
- Joo, B. K., & Kim, N. H. (2011). Exploring male preservice teachers' difficulties and the effective ways of support for male preser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1), 485-508.
- Jun, M. K. (2004). Analysis of household textbooks for middle high school in colonial a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3), 1-25.
- Jun, M. K. (2005). A study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1900-1910's: An analysis of 『hanmun gajeonghak』, 『sinpyeon gajeonghak』 and 『sinjeong gajeonghak』 published by 'Hyun Kong-ryeo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1), 131-151.
- Kil, B. O., Lee, S., Lee, S. Y., & Chung, H. J. (202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Q-methodology].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Kim, A. L. (2020). *A subjectivity study on the recognition types of child welf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 M., & Kim, M. J. (2013). Analysis of the types of images early childhood teachers have about kindergarten teachers: Employing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2), 239-262.
- Kim, D. W. (2013). A study on adaptation and turnover of novice male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1), 339-365.
- Kim, E. J., & Lee, S. H. (2020). Perception types of value of children for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 high school parents. *Journal of KSSSS*, 52, 87-107. doi: 10.18346/KSSSS.52.5
- Kim, H. J. (2015). Perception pattern of grandparenting in double-income families on the adult children perspective: By using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6(1), 135-163. doi: 10.16999/kasws.2015.46.1.135
- Kim, H. K. (1992). Q methodology for subjective research.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6(1), 1-12.
- Kim, H. K. (2008a). *Q 방법론 [Q method]*. Seoul: Communicationbooks.
- Kim, H. K. (2008b). Agreement between the Q-block and the Q-tool. *Journal of KSSSS*, 16, 5-16.
- Kim, H. K., & Cha, C. Y. (2008). Preference factors in the materials of television life-information program. *Journal of KSSSS*, 17, 157-178.
- Kim, H. K., & Kim, U. R. (1998). Understanding of TV news audience. *Journal of KSSSS*, 3, 5-36.
- Kim, H. S., & Won, W. M. (2000). *Q 방법론 [Q method]*. Seoul: Kyoyookbook.
- Kim, J. O. (2018, March 6). A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male graduate ... appointed as a home economics teacher (동국대 경주캠퍼스 "남자 졸업생..가정과 교사 임용). *Kyongbuk Ilbo*. Retrieved from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199834&part_idx=237
- Kim, M. A., Nam, S. H., Park, E. S., & Park, E. A. (2014). The type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 Q methodological approac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1), 328-352. doi: 10.15709/hswr.2014.34.1.328
- Kim, S. E. (2016). *Q 방법론과 사회과학 제2판 [Q method & sociology]*. Seoul: CM Press.
- Kim, S. J. (2008). A study on gender differences of gender-role stereotype among you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 129-149. doi: 10.16999/kasws.2008..36.129
- Kim, S. U., & Lee, D. K. (2015). Mal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How female teachers the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 419-452.
- Kim, W. K. (2018). An exploration on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types of participation to cultural physical education: Using Q-methodolog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6), 85-105. doi: 10.22251/jlcci.2018.18.16.85
- Kim, W. S., & Kim, S. H. (2003). The occupational stereotyp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1(2), 11-22.
- Kim, W. Y., & Kim, S. R. (2016). The analysis on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image on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by Q-methodolog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1), 123-142. doi: 10.22143/HSS21.7.1.7
- Kim, Y. S., & Lim, S. M. (2011).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female undergraduates who want the male-dominated job: A grounded theory based approach.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3), 303-329. doi: 10.18205/kpa.2011.16.3.004
- Kwon, M. H., Kim, B. H., & Kim, Y. J. (2009). Subjectivity about satisfaction of life in middle-aged single women. *Journal of KSSSS*, 18, 101-123.
- Kwon, Y. K. (2010). An analysis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ypes of perception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5(2), 38-77.
- Kwon, Y., Lee, Y., Lim, Y., Park, Y., Lee, E., & Park, S. (2020). Exploring the ways to use maker education in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4), 19-30. doi:10.19031/jkheea.2020.12.32.4.19
- Lee, E. Y., & Park, S. O. (2017). An analysis on awareness type of adult learners of lifelong education with Q methodolog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3(2), 1-29.
- Lee, G. J. (2020). The perception of good childcare teacher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13(1), 113-130. doi: 10.20325/KCA.2020.13.1.113
- Lee, S. Y., & Shim, T. E.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 typ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KSSSS*, 41, 5-28. doi: 10.18346/KSSSS.41.1
- Ok, S. S., & Ryu, K. H. (2013). A study on stress recognition types in the adaptation process of domestic adoptive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131-156.
- Park, E., Yoo, S. H., & Chung, A. R. (2017). Q-methodology analysis on family relation types amongst immigrant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28(1), 67-97. doi: 10.14816/sky.2017.28.1.67
- Park, J. H., & Seo, H. A. (2018). A study on the styl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practices: Q 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7(1), 75-98. doi: 10.30761/eceec.2018.17.1.75
- Park, Y. S., & Kang, K. A. (2020).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male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5(5), 73-94. doi: 10.20437/KOAECE25-5-03
- Roh, H. J., & Kim, K. C. (2019). Mentoring stories between experienced male kindergarten teacher and pre-service male kindergarten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9(3), 31-61. doi: 110.18023/kjece.2019.39.3.002
- Santrock, J. W. (2004). *Adolescence* (9th ed.). (H. J. Kim et al., Trans.). New York: Mc Graw Hill.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Shin, H. J. (2014).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the change of adolescent work valu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4), 285-308.
- Shin, S. Y., & Kim, S. H. (2017). The perception of good teacher: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SSSS*, 36, 27-44.
- Sohn, S. Y. (2005). Labor experiences and dilemma of highly-educated professional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1(3), 67-97.
- Tak, J. K. (1995). Occupational sex stereotyp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based on sex, sex-role type and cultur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1), 161-174.

- Wang, S. S. (2003). Document research to identify the goal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79-99.
- Wang, S. S., & Nam, S. J. (2008). Preliminary home economics teachers' image of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205-211.
- Wang, S. S., & Ryu, K. H. (2013). A study on the 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based on their subjective perceptions on single lif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2(6), 615-631. doi: 10.5934/kjhe.2013.22.6.615
- Watts, S., & Stenner, P. (2014).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P. G. Baek, Trans.). London: SAGE.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Yoo, Y. J., Kim, H. J., Kim, M. Y., Kim, S. G., Kim, Y., Park, J. H.,...Hong, S. J. (2004). *새로운 가족학 [Family science]*. Paju: Shinjeong.
- You, S. Y., & Jeong, K. S. (2020). Exploring teacher's curriculum interpretation component facto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3(3), 123-143. doi: 10.29096/JEE.33.3.06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 되며 인식의 각 유형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주관성 연구에 탁월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Q방법론의 일반적 절차를 따랐다. 먼저 Q모집단에서 Q표본 즉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표상체계로 구성된 40개 진술문을 확정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31명으로 구성된 P표본에 의해 진술문을 Q분류하였고,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유형은 4개로 도출되었고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개인 특성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의 '남자'라는 성과 담당 교과인 「가정」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일 뿐이라는 인식특성을 드러냈다. 유형 2는 '교과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를 「가정」이라는 교과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 유형 3은 '역량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교과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실력과 역량을 갖춘 교사라는 인식적 특성을 보인다. 유형 4는 '인성 중시형'으로, 남자 가정과교사는 가정이라는 교과에 도전한 멋진 교사라는, 교사의 인성적 특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남자 가정과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인의 맥락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1년 6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21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9월 14일